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최종안 연말 발표

기존 저심도 방식 사업비 급증 '원점'서 재검토기로 수천만원 들여 용역 불구 결론 못내 사업추진 의심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최종 결정이 올 연말로 늦춰지게 됐다. 기존 저심도 방식이었던 건설방식의 사업비가 급증함에 따라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천만원을 들여 사업비 절감을 위한 용역까지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건설방식을 다시 검토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안보고에서 "2호선 건설 사업비 절감을 위한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결과 절감 가능액이 1030억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범수 도시철도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선 1270억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다양한 건설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원안인 저심도 방식에 노면구간과 반지하로 건설하는 방안 등 5건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건설방식 대안으로는 ▲저심도+노면(트램)+광주형 모델(반지하 또는 지상고가) ▲저심도+노면(트램) ▲노면전차(트램)형(노면전차+지하) ▲모노레일 중심형(모노레일+노면) ▲원안 고수형 등이다.

하지만 이 대안은 민선 4기부터 수년간 논란 끝에 저심도로 결정할 것을 다시 재론한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문 본부장은 "과거에는 트램과 모노레일 방식의 경우 국내에서 보편화되지 않았고, 트램은 관련법 등이 없어 어려웠지만, 최근 대전과 대구에서 도입하거나 할 예정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건설방식"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분석하고 시민 여론 등을 광범위하게 듣고 (건설방식을)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성 용역은 2호선 건립 사업비

가 2조71억원(지난해 말 기준)에서 4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감을 위해 시행했다.

10%(약 2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칠 수도 있어 예상 증액분 4300억원 가운데 2300억원을 줄여야 재조사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혼란과 갈등 끝에 건설하기로 결정해 놓고 1년 넘게 건설방식을 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추진 의지가 있는나"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민중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시가 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사업비에 넣지도 않아도 될 부분의 사업비를 더 부풀려 총 사업비가 예정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업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의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연말까지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김기웅(오른쪽)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황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88고속도로→'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바뀐다

'달빛고속도로' 변경은 타 지자체 거부 무산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이름이 다음달부터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열고 다음달 확장개통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이름을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고속도로 시점과 종점지역의 이름을 따르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는 서에서 동, 북에서 남이 시작점과 종점의 기준이 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에 앞서 영호남 동서회합차원에서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달빛고속도로'로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명칭 변경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지역이 거부감을 보이는데다, 기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8고속도로 왕복 4차로 확장공사가 다음달 22일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대구 간 운행 시간은 종전 2시간 10분에서 30분 줄어든 1시간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준 너무 낮아 비현실적"

정영덕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무안)은 24일 전남인재육성재단 행사사무감사에서 장학금 지급기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장학금 지급대상이 C학점 이상으로 돼 있어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전남도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마다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해 도내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장학생, 인재장학생, 도정발전 유공장학생, 위탁선발 장학생, 5·18민주



유공자녀 장학생 등 대상으로 2013년 1627명 (12억 8034만 5000원), 2014년 1514명(12억5548만원)에 올해 현재까지 881명(7억3664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 의원은 "복지장학생의 경우 대학생에 대한 지급 기준이 C학점 이상으로, 최소 B학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전남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의 성적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저심도 중심형+일부구간 반지하 ... 사업비 2조2000억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제시한 대안은 기존 저심도 공법을 포함해 모두 5가지다.

우선 원안인 저심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다. 저심도(37.7km) 중심에 지상(4.2km) 구간을 혼합한 기존 안에서 일부 구간을(9.5km) '광주형 모델'로 지정한 반지하 형태로 변경하는 안이다. 예상 사업비는 2조2000억원이다.

두번째 방안은 저심도와 노면(트램) 조합형이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1단계 구간(17.06km)은 지하, 나머지 2단계(20km)·3단계(4.84km)는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지상 구간의 경우 차로 폭이 좁은 구간은 제외된다. 사업비는 1조9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철도2호선 공법 대안**
- 저심도+노면+광주형 모델
 - 저심도+노면(트램)
 - 노면전차형(노면전차+지하)
 - 모노레일 중심형
 - 원안 고수형

세번째 방안은 노면전차(트램) 중심형이다. 차로가 좁거나 교통이 혼잡한 구간(7.5km)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간은 트램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예상되는 소요 사업비는 1조4900억원 정도다.

다음으로는 1·2단계 전환선은 모노레일, 별도선인 3단계 구간을 트램으로 하는 방법이다. 모노레일과 트램은 차량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구간만 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사업비는 1조93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2조3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원안을 유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자는 안이다.

계획 변경을 최소화한 첫번째, 두번째 방안은 기존 저심도 방식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끝난데다 예산,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저심도

방식이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또한, 트램과 모노레일은 기존 저심도 방안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정부와 협의한 뒤 기본설계를 다시해야 하고, 시민 합의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가 애초 계획한 2016년 말께 공사 착공은 물론 운영현 시점의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광주시는 준비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타키)까지 고려하고 있다. 시는 공청회,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건설방식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불과 한 달여만에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전체 구간(41.9km), 운영현 시장 임기 내 착공, 최대한 공기 단축은 불변의 원칙"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정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박순종씨

전남도는 송상락 기획조정실장의 행정자치부 전출에 따른 후속인사로 행정부에서 파견간 박순종(57)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부장을 12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

박순종 선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우석고,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재양성팀장,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책실장 사회조



직과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기획능력이 탁월한 정통 행정 전문가로 중앙부처에서 구축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지방과 중앙과의 가교역할적 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송상락 현 기획조정실장은 과천시사 관리소장으로 율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nk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드름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 초기 아찔 및 빛반,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